

# 교양회계 과목이 재무이해력 수준에 미치는 효과 분석

윤성용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Liberal Accounting for Financial Literacy

Sung-Yong Yoon  
Dept. of Accounting, Kyung Sung University

요 약 자본시장에서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재무이해력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이해력 교육을 강화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교양회계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양회계 과목을 개설한 후 각 단계별로 테스트를 거쳐 재무이해력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양회계 과목 교육 후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해 교양회계 과목 교육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학교에서 재무이해력 증진 프로그램 마련 시 교양회계 과목이 유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제어 : 재무이해력, 재무교육, 재무스트레스, 교양과목, 교양회계

**Abstract** In the capital market, there has been a need to improve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in order to make the right economic decision, and to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advanced countries to financial problems and to be more responsive to the economic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 liberal accounting education implemented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of students in K University was effective. The effects of financial literacy level were analyzed after conducting tests for each phase after opening an liberal accounting. The analysis showed that students' level of financial literacy increased after the education of liberal account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ducation of liberal accounting is more effective for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d show that liberal accounting are useful in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literacy programs in each university.

**Key Words** :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Stress, Liberal Arts, Liberal Accounting

### 1. 서론

자본시장에서 재무적 이해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없다면 기업경영 및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재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무이해력 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의 올바른 재무적 행동은 미래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사회 안정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재무교육의 보편화를 들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여러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 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Sung-Yong Yoon(yoon6@ks.ac.kr)

Received February 23,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7, 2018

Published June 28, 2018

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재무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에 편입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1].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듯 마스트카드의 금융이해력보고서(Financial Literacy Index Report, 2016)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 17개국 중 1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소비 관리, 예산 및 자산관리, 재무제표 이해력, 금융상품 비교능력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도 17개국 중 13~16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2].

이러한 재무이해력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회초년생들의 재무스트레스는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정서적 반응에 따라 높게 느끼고 있으며,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이해력 및 재무관리 행동의 중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양회계과목이 해당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해당 과목의 수업이 진행되기 전 재무이해력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을 사전적으로 측정하고 강좌를 진행하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및 교육 후 재무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한 이후 전공별, 학년별,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양회계과목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영위하기 위한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이해력 향상이라는 이슈에 대한 교양회계과목 교육의 중요성과 재무이해력 향상 및 재무 소비자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2. 재무교육의 이론적 배경

재무교육은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재무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재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4].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재무이해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재무이해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재무이해력과 교육발전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을 제정하고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재무 이해력 및 교육 발전 위원회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Committee)를 설치하여 재무이해력 향상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재무관리 능력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재무성을 중심으로 초보 부모, 학교, 초년 어른, 작업장, 소비자 의사소통, 온라인 도구, 자금 조연 분야를 중심으로 재무이해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재무이해력 태스크 포스(The National 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 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재무이해력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2005년 재무이해력 재단(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설립하여 재무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

한편, OECD에서는 2003년 재무이해력 일반원칙(Common Financial Literacy Principles)을 개발하고 정부 간 통합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08년 재무교육 및 연구를 위한 국제 게이트웨이(The International Gateway for Financial Education)를 출범시켰다. 2006년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무이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재무이해력 수준이 낮으며 재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국제비교를 위해 성인 1,820명(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을 대상으로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성인의 절반 정도(47.7%)가 OECD INFE가 정한 최소목표점수(66.7점)에 미달하여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취약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올바른 금융행위 및 태도 형성을 위해 조기에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 3. 회계교육과 재무이해력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의 교육내용이 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회계학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용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회계학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전문기술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

용성을 가지고 있다[8]. 이러한 회계학의 특성으로 미국 회계학회(AAA)는 1984년 회계교육을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개발하고 전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 지현미(2011)의 연구에서도 회계교육은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실용적인 교양과목으로 사회진출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양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0].

한편, 재무교육과 재무이해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Bernheim, Garrett, Maki(2001)는 고등학교에서 재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추후 자산축적과 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또한 Mendell(2008)의 경우도 고등학교 시절 재무교육을 실시하면 저축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12]. Borden 등(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무교육을 실시한 후 재무교육 효과를 측정할 결과 재무이해력의 수준이 증대되었으며, 재무교육을 받은 학생이 신용에 대해 더 책임감을 보이고 신용관리를 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국외의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김경자, 홍정하(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재무지식과 재무관리 행동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백은영, 배미경, 이승신(2004)의 연구에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재무교육을 학습한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최현자, 조혜진(2011)의 연구에서도 재무교육이 대학생의 재무관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효정(2005)은 합리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17]. 김민정, 이희숙, 김효심, 박민주(2012)의 연구에서도 재무교육을 학습한 대학생이 합리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이해력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18].

한편, 조영석, 박송준(2010)의 연구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 시스템이 미흡하고, 특정 교육 주체가 없으며, 내실 있는 교육보다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9].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이 재무교육에 대해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전략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우명옥, 김진섭(2012)의 연구에서 교과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무과목이 어렵다는 학생들의 인식에 따라 강의시수 증대, 효율적인 수업교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지원(2015)

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교양교과 개발과 그 효과를 위해서는 교과 내용 및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교육 방식, 강의 전달 방법, 교육 방식의 구체화 및 구조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20,21].

## 4. 연구방법

### 4.1 연구모형

K대학교는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재무이해력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교양회계과목을 개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 기초, 자금조달, 원가관리, 자산운용, 세금/회계활용 등에 대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회계정보가 어떻게 작성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및 기업의 경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과 투자활동 등에 대해 학습하여 회계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학습하고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이해력 교육을 통하여 회계용어와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고 이를 활용된 정보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학습목표로 K대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의 교양수업과는 별개로 K대학교는 미국의 재무문맹퇴치연구소(The Institute for Financial Literacy)에서 권고하고 있는 성인 재무이해력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Adult Financial Literacy)을 기반으로 자금관리, 신용관리, 부채관리, 위험관리,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문의 5가지 재무이해력에 대한 측정기준을 시범 개발하였다. 자금관리는 현금흐름 관리 및 순자산 분석이 어떻게 재무 목표 달성 도구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신용관리는 신용을 획득하는 방법과 장소 그리고 신용 사용과 남용에 대한 것이다. 부채관리는 부채 사용이 자산을 형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으로 부채 측정과 부채 해결에 대한 것이다. 위험관리는 자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은퇴 후 계획 부문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및 은퇴 후 전략에 대한 것으로 투자기획, 투자전략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교양회계 교육이 성인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무이해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양회계 교육과 재무이해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설문조사에 머물러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을 실제 테스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해본 것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교양회계 과목 교육을 실시하기 전 재무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교양회계 과목 교육을 실시한 이후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 1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Fig. 1. Research Model

#### 4.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K대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교양회계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교양회계 과목을 개설한 후 교육을 실시하기 전 재무이해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재무이해력 측정 수준 Pre-Test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교양과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재무이해력 측정 수준 Post-Test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교양회계 프로그램에 따른 재무이해력 수준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교양회계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양회계과목 교육을 실시하기 전 재무이해력 수준 Pre-Test와 재무이해력 수준 Post-Test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별, 학년별, 전공별로 재무이해력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ver.22.0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본의 대상인 학생들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교양회계 과목 교육 전 재무이해력 수준(Pre-Test)을 측정하고 교양회계 과목 교육 후 재무이해력 수준(Post-Test)을 측정하여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차이분석(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5. 연구결과

### 5.1 표본의 구성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Table 1과 같다. 재무이해력 시험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응시한 대학생은 총 159명으로 남성이 73명, 여성이 86명이었으며, 전공별로 인문사회 분야가 123명, 자연공학 분야가 3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1학년이 7명, 2학년이 44명, 3학년이 47명, 4학년이 61명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Composition of the Sample

Contents		N	(%)
Sex	Male	73	45.9
	Female	86	54.1
Departm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23	77.4
	Natural engineering	36	22.6
Grade	1	7	4.4
	2	44	27.7
	3	47	29.6
	4	61	38.4
Total		159	100

### 5.2 실증분석결과

Table 2는 교양회계 교육의 재무이해력 증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e-Test와 Post-Test를 t 검정에 의하여 비교한 표이다. Pre-Test는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하기 전 성적으로 교양회계 교육이 일정기간 진행된 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t통계 값은 각각 -27.83, -9.78, -18.23, 유의확률 0.00으로 교양회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사후 재무이해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양회계 과목이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2. t test Results on the Effect of Financial Literacy

Contents	Ave	Std.D	t	p	N
Pre-Test	51.29	13.27	-18.23	0.00**	159
Post-Test	71.64	11.87			

\*P<0.05, \*\*P<0.01

Table 3은 성별에 따른 교양회계 교육이 재무이해력 증진 효과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표이다.

Table 3. t test Results on Differentiate by Sex

Contents		Ave	Std.D	t	p	N
Pre-Test	Male	52.19	13.67	0.78	0.43	73
	Female	50.52	12.95			86
Post-Test	Male	72.40	11.06	0.75	0.45	73
	Female	70.99	12.55			86

\*P<0.05, \*\*P<0.01

남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 Pre-Test 평균은 52.19, 표준편차는 13.67이며, 여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 Pre-Test 평균은 50.52, 표준편차는 12.95였다. 남녀 학생들의 교양회계 교육 실시 전 재무이해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0.78, 유의확률은 0.43으로서 성별에 따른 재무이해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학생의 Post-Test 평균은 72.40이고 표준편차는 11.06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Post-Test 평균은 70.99, 표준편차는 12.55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조금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t통계값은 0.75, 유의확률 0.45로 나타나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한 후에도 성별에 따른 재무이해력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Table 4는 전공분야에 따라 재무이해력 수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표이다.

Table 4. t test Results on Differentiate by Department

Contents		Ave	Std.D	t	p	N
Pre-Test	H.S	52.97	11.71	2.52	0.02*	123
	N.E	45.56	16.51			36
Post-Test	H.S	73.01	11.80	2.85	0.01**	123
	N.E	66.94	11.04			36

\*P<0.05, \*\*P<0.01

Pre-Test에서 인문사회 전공자의 재무이해력 수준 평균은 52.94, 표준편차는 11.71로 자연공학 전공자의 재무이해력 평균 45.56, 표준편차 16.51과 비교해 t통계값은 2.25, 유의확률 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Post-Test에서 인문사회 전공자의 재무이해력 수

준 평균은 73.01, 표준편차는 11.80로 나타났으며, 자연공학 전공자의 평균은 66.94, 표준편차는 11.04로 인문사회 전공자가 자연공학 전공자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t통계값은 2.85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전공별로 회계학에 대해 평소 접할 수 있었던 환경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공별로 초기에 교양회계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진행해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5는 학년별로 재무이해력 수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One-way ANOVA를 테스트한 결과표이다. 살펴보면 Pre-Test에서는 1학년의 평균은 37.14, 표준편차가 8.59이고, 2학년의 평균은 51.36, 표준편차는 13.83으로 나타났다. 또한 3학년의 평균은 52.55, 표준편차 13.63이며, 4학년의 평균은 51.29, 표준편차는 12.32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2.94였으며, 유의확률은 0.35로 나타나 Pre-Test에서는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Post-Test에서는 1학년의 평균은 57.86, 표준편차는 12.20이고, 2학년의 평균은 70.11, 표준편차는 13.23으로 나타났다. 또한 3학년의 평균은 73.01, 표준편차는 11.58이었으며, 4학년의 평균은 73.03, 표준편차는 10.01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Post-Test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은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F값은 4.21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양회계 과목에 대한 교육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교양회계 교육은 1학년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5. One-way ANOVA Results on Differentiate by Grade

Contents		Ave	Std.D	F	p	N
Pre-Test	1	37.14	8.59	2.94	0.35	7
	2	51.36	13.83			44
	3	52.55	13.63			47
	4	51.29	12.32			61
Post-Test	1	57.86	12.20	4.21	0.01**	7
	2	70.11	13.23			44
	3	73.01	11.58			47
	4	73.03	10.01			61

\*P<0.05, \*\*P<0.01

## 6. 결론

주요 선진국은 재무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다양한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무이해력은 자본시장에서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회계 교육을 받은 K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회계 과목 수강이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양회계 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생들의 재무이해력 수준은 평균 20.35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양회계 과목 교육은 그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Fig. 2. Research Model Results

한편 K대 학생들의 성별, 전공별, 학년별로 재무이해력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공별, 학년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대학에서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 마련 시 전공별, 학년별로 준비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교양회계 과목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재무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양회계 과목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공별, 학년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K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교양회계 교육을 통해 향상된 재무이해력이 실제 사회 진출 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교양회계 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양회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졸업 후 추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사항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REFERENCES

- [1] J. H. Kim & H. J. Choi. (2011). The Development of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Measure.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 [2] Mastercard. (2016). *Progress Towards Financial Wellbeing is Stagnant across Asia Pacific*.
- [3] A. R. Kim & H. K. Yang. (2016). The Effects of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Distress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Young Working Adults.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79-105.
- [4] H. C. Choe, Y. A. Sung & S. J. Yang. (2008). A Review of Research Trends and Practical Tasks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Area.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1-17.
- [5] J. T. Kim, S. J. Pae & H. S. Han. (2016). Financial Literacy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Chung-Ang University, Da Vinci Future General Education Institute.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4, 107-134.
- [6] OECD. (2006.7).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OECD Policy Brief(Online). <http://www.oecd.org>
- [7]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7). *2016 National Financial Literacy Survey*. Seoul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8] Y. K. Lim. (2017). Accounting in the Liberal Arts Curriculum-Focusing on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College of Liberal Arts Accounting,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281-309.
- [9] K. Y. Chung. (2002). Role of Accounting and Education in Social Development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7), 59-83.
- [10] H. M. Ji. (2011). The Demand Analysis for Practical Accounting Education,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16), 23-45.
- [11] B. B. Douglas, D. M. Garrett & D. M. Maki. (2001). Education and Saving: The Long 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3), 436-466.
- [12] A. Lusardi. (2008). *Overcoming the Saving Slump: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and Saving Programs*.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13] L. M. Borden, S. A. Lee, J. Serido & D. Collins. (2008). Changing College Students' Financi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hrough Seminar Particip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9(1), 23-40.
- [14] K. J. Kim & J. H. Hong. (2002).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 Human Ecology*, 22(1), 5-17.
- [15] E. Y. Baek, M. K. Bae & S. S. Lee. (2004)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on the Perceived Financial Management Problems of U. S. College Stud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8), 219-233.
- [16] H. C. Choe & H. J. Cho.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Experiences on the Financial Liter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2(4), 55-75.
- [17] H. C. Kim. (2005). Money management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credit card usag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4(1), 95-105.
- [18] M. J. Kim, H. S. Lee, H. S. Kim & M. J. Gwag. (2012). Educational Effects of Personal Finance Class as Liberal Arts for Enhancing Financial Literacy of University Student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8(4), 71-91.
- [19] Y. S. Cho & S. C. Park. (2010). Current Trends of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3(2), 1185-1203.
- [20] M. Y. Woo & J. S. Kim (2012).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mputerized tax accounting education plan.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 229-240.
- [21] J. W. Kim. (2015). Efficacy Analysis of eveloped Course for Promoting Character Education with Women's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1), 481-491.

윤 성 용(Yoon, Sung Yong)

[정회원]



- 1999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학사)
- 2001년 2월 :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2010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자본시장, 회계교육, 융·복합 회계, 대학재정
- E-Mail : yoon6@ks.ac.kr